

社說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김영우 국회의원과 본사 최호열 대표이사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영우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 포천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인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도 만나 포천시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요구를 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포천시가 그 악몽 같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영우 국회의원에 몇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물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에서 부탁하고자 한다.

첫째, 김영우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약사항을 직접 지역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 그대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공약이 아닌 포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의 정도를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를 해도 양주시의 경우는 눈부신 발전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양주시가 포천시와 함께 시로 승격되었음에도 더욱 발전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리더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포천시도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현재 김영우 국회의원의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의장, 이주석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새로운 인물이 포천시를 이끌어 가는 정치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국회의원이 서 줄 것을 요구한다. 먼저 나서서 중앙정부의 흐름도 설명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포천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나서 주어야 한다.

넷째, 포천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포천은 과거 문항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화자와 시인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거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유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화는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포천의 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도 많다. 이들을 연대하여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해준 포천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는 포천시가 희망의 도시, 꿈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그 중심에서 서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은 방북현장 調査 즉각 수용하라”

김영우 국회의원, 위기관리포럼 성명서 발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포럼에서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우(한나라당, 포천·연천) 의원은 7월14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한 위기관리포럼 성명서를 회원들을 대표해서 발표했다. 김영우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의 방북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 방북현장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는 위기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위기관리포럼 소속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사건을 인지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부처, 비국가기관간 위기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포럼은 북한 측에 남북 당국간 전면적인 대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포럼에서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우(한나라당, 포천·연천) 의원은 7월14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한 위기관리포럼 성명서를 회원들을 대표해서 발표했다.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의회 간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회의원의 진상조사단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

기관리포럼은 공성진 의원이 대표, 김영우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 외 강석호, 고승덕, 김동성, 김성희, 김을동, 김효재, 박영아, 안형환, 원유철, 유정현, 윤상현, 이광재, 이주영, 이철우, 장광근, 전여옥, 정옥임, 조해진, 주호영, 현경병 의원 등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유한아파트사거리에서 교통캠페인

포천경찰서 기마와 함께 법질서 확립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7월 15일 오전7시30분부터 시간동안 평소 아침 출근시간대 정체지역인 유한아파트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경찰관 40명, 협력단체 60명 등 총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경비교통과장은 무더운 날씨에 캠페인에 참석한 경찰관, 협력단체 등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자며 기마와 함께 홍보활동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시켜 법 질서 확립 문화를 조



포천경찰서는 7월15일 오전7시30분부터 시간동안 평소 아침 출근시간대 정체지역인 유한아파트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하고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직원 건강관리 위한 외래강사 초빙 특강

포천署,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무궁화포럼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에서는 7월11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및 건강관리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촛불집회 동영상 시청, 건강관리 외래강사 특강, CS 내부강사 교류강의(의정부시 경위 김종환), 기능별 당면현안 사항 토론,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서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경희화의원 윤인수 원장이 초빙되어 ‘웃음과 박수의 건강학’을 주제로 격투에 지친 직원들에게 유쾌한 강연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에서는 7월11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및 건강관리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한편, 신북파출소 경위 김준근 등 11명에 대해 상반기 기능별 업무유공 및 법인검거유공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순회교육

포천경찰서, 포천일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7월 11일 오전8시30분 포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의근반장(경위 정화수)이 강사로 나서 이론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으며, 또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교통사고가 제로 되는 그 날까지 고등학교 방방 안전교육은 계속



포천경찰서는 7월11일 오전8시30분 포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스피드119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포천소방서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행정 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스피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스피드119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스피드 119민원처리 시스템이란 '1'회 소방서 방문으로, '1'일(24시간)안에 '9'종의 주요민원을 365일 언제라도 해결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119민원처리 시스템은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사전예약제를 신청하면 사전예약을 받은 민원담당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유선 등으로 안내하여 민원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확인 및 서류검토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의 출장·휴가 등 담당자 일정을 사전 예고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센터를 운영 민원담당자



포천소방서는 행정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스피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스피드119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간외·윤번제 근무, 업무대행 복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소방행정서비스 가치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여 화재·구조·구급 및 소방행정에서도 최고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119민원처리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대민 친절 및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뉴스!' and the website www.ipcs21.com. It includes details about subscription and advertising rates.